



미 증시, 인플레이션 불안감 증폭으로 급락

미국 증시 리뷰

12 일(화) 미국 증시는 4 월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 상승했다는 소식에 하락 출발. 장중에도 인플레이션 추세적 급등 가능성에 따른 연준의 조기 정책 정상화 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낙폭이 확대되며 급락세로 마감(다우 -2.0%, S&P500 -2.1%, 나스닥 -2.7%). 10 년물 금리도 1.61%대에서 1.69%대로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금리 상승에 민감한 기술(-2.9%) 이외에도 경기소비재(-3.3%), 소재(-2.5%), 산업재(-2.4%) 등 대부분 업종이 급락세를 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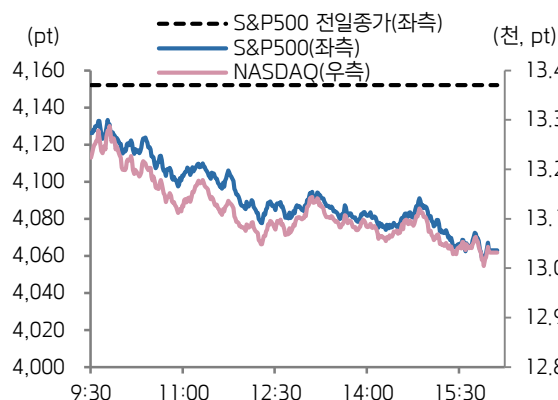
미국의 4 월 소비자물가는 4.2%(YoY)로 전월(2.6%) 및 예상치(3.6%)를 큰 폭 상회하며 2008 년 9 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 지난해 4 월 기저효과, 경제 정상화에 따른 항공, 호텔 등 서비스 품목 가격 상승, 신차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중고차 가격 상승 등으로 높게 나오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으나, 예상보다 상승률이 컸다는 점이 인플레이션 급등 불안감을 강화.

미국 증시 평가

4 월 소비자물가 서프라이즈로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연준의 물가 전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모습.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4 월 소비자 물가가 놀랍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출현 시 연준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음에도, 시장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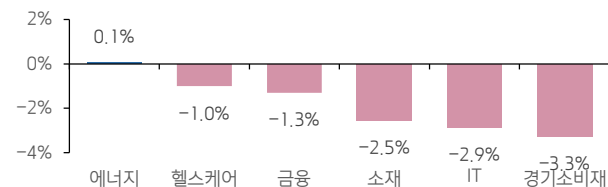
현재 반도체 부족사태 해결 지연, 신흥국 및 아시아 지역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공급망 차질 재출현 등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세를 유발했다는 인식이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 그러나 경제 정상화 및 부양책 효과에 따른 수요 견인 물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는 점은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급등이 아닌, 일시적 공급 차질에서 기인한 오버슈팅 후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S&P500 일종 차트(5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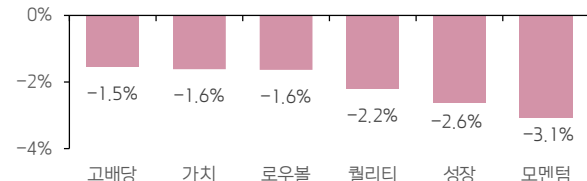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5월 12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5월 12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4.30%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2.76%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1.0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3.1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발 인플레이션 쇼크로 인해 국내 증시의 하락세 심화 가능성 2. 2 거래일 연속 역대급 순매도를 연출한 외국인의 추가적인 대규모 물량 출회 여부 3. 최근 국내 증시 조정은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일정부분 선반영된 측면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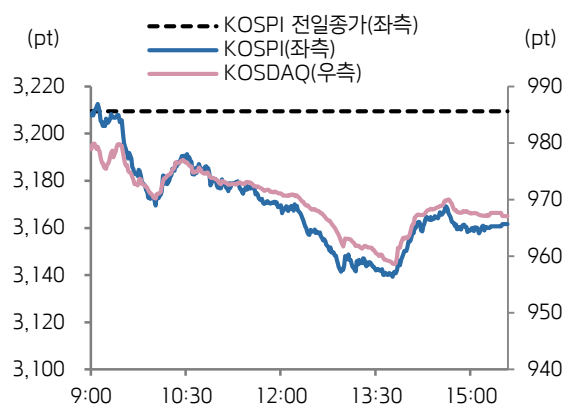
12 일(화) 한국 증시는 장 초반 미국 기술주 투매 진정, 낙폭 과대 인식성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출발. 그러나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대만 증시 폭락 여파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역대급 순매도(2.7 조원)를 초래. 이로 인해 장 중 2% 넘게 급락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들어 낙폭을 축소하며 1%대 하락세로 마감(코스피 -1.5%, 코스닥 -1.2%)

대만 증시 폭락 배경은 누적 확진자가 1,200 명대에 불과한 만큼, 코로나 모범 방역 국가였던 해당 국가에서 신규 확진자가 10 명대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정부의 봉쇄조치 강도 상향 가능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 이는 IT 산업 비중이 높은 대만 내 공급 차질 불안감을 유발하면서, 대만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국내 증시에도 충격을 가함.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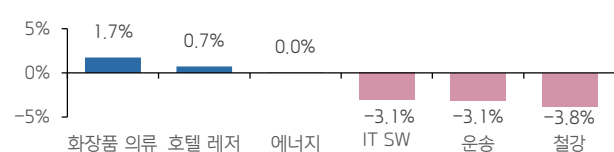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쇼크에서 기인한 미국발 악재에 영향을 받아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현재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의 조기 정책 정상화 시행, 그로 인한 유동성 장세 조기 종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한국, 미국 등 주요국 모두 지수 레벨이 고점 부근에 있는 만큼 이익 실현 욕구가 높아졌다는 점이 최근 시장 조정의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다만 외국인의 최근 순매도강도가 역대급이었다는 점, 최근 국내 증시의 급락세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정부분 선반영했다는 점을 고려 시, 금일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종 차트(5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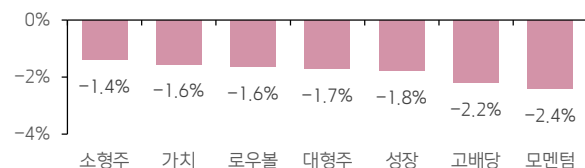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5월 12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5월 12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류,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